

부산지역 토성 연구

이 일 겁*

〈목 차〉

- I. 머리말
- II. 부산지역 토성의 조사현황
- III. 부산지역 토성의 구조와 축조수법
- IV. 부산지역 토성의 고고학적 검토
- V. 맺음말

국문요약

부산지역에는 망미동토성, 당감동토성, 교리토성과 관방성인 구랑동성이 있으며 성곽분류에 있어 모두 토성이다.

부산지역 망미동토성, 교리토성, 당감동토성, 구랑동성의 평면형태는 크게 제형과 타원형으로 분류된다.

부산지역 토성 가운데 고읍성은 평지나 완만한 구릉성 지대에 축조되어 있다. 교리토성과 기장산성, 망미동토성과 배산성에서 보듯이 배후에 입보농성형 내지 피난성의 성격이 짙은 석축산성을 가진 상호보완 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 토성 축조수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석재를 이용한 기단석을 기저부에 설치한 석축기단형 판축토성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기단에 사용된 기단석은 두께에 비해 길이가 긴 세장방형 성석을 사용한다. 이는 부산지역 토성 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남지역 여타 판축토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시기성을 가진 축조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 토성에서 평지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망미동토성, 당감동토성, 교리토성은 비슷한 영정주 간격, 즉 400cm를 기준으로 가감이 이루어진 듯하다. 반면에 보루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구랑동성, 화산리토성, 반구동토성

* (재)시공문화재연구원

영정주는 각각 550cm, 520cm, 450cm로 치소성으로 파악되는 토성 초축 폭에 비해 약 50~60% 절반의 크기로 축조되고 석성 혹은 석축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토축 체성의 폭은 감소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경상도지역 가운데 토축, 석축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곳은 부산지역이 유일하다. 따라서 시간성과 지역성을 갖춘 부산지역 토성의 특징적인 축조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 읍성, 고읍성, 판축토성, 체성부, 영정주, 석축기단

I. 머리말

부산지역에 산재한 성곽들을 분류하면,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함께 가지는 읍성,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요지에 설치되는 영진보성, 유사시에 입보 농성하기 위하여 쌓은 산성, 그리고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왜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부산지역에는 읍성이 5개소가 확인된다. 그 읍성 중 조선시대 석축으로 축조된 읍성인 동래읍성과 기장읍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이전 시기에 축조된 망미고읍성, 당감동고읍성, 교리고읍성이라 하였다.

아울러 부산지역에서는 관방성인 구랑동성도 조사되어 비교적 많은 토성 조사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러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박물관에서 『釜山성곽』을 발간하면서 고읍성으로 알려진 부산지역 토성 구조와 축조수법, 부대시설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거나 과거 조사결과에서 비교자료 미비로 간과된 점이 새롭게 파악될 수 있었다.¹⁾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토성 체성부 축조수법에서 특징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축성사에 있어 부산지역 토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학 동배들의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

II. 부산지역 토성의 고고학적 조사현황

1. 망미동토성

망미동토성은 행정구역상 부산시 연제구 망미동에 위치하는 토성으로 일명 동래고읍성으로 불리운다. 발굴조사 결과 최대폭(기단보축토 포함) 1,200cm, 높이 230cm 정도가 잔존한다. 토층조사에서는 초축 이후 2차의 수축양상이 조사되었다.

기단토 내부의 유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성 내부 및 주변에서 조선시대 기와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

¹⁾ 부산박물관, 『釜山성곽』,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51집, 2016, 278-297쪽.

대 말 이전에는 폐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²⁾

토성 내·외 기단 간 폭은 초축기단 870~920cm 정도이다. 그러나 구간마다 그 폭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며, 최대 980cm의 폭으로 조사된 구간도 있다.

토성은 2~3단으로 계단식 내벽 기단석열 1개소와 1~3단으로 축조한 외벽 초축기단석열, 3~4단이 남아있는 외벽 수축기단 1개소가 확인되었다.

기단에서 확인된 영정주간 거리는 평균 435cm 정도이며, 영정주 직경은 20cm 전후이다. 평면에서도 초·수축 성벽이 구분되며, 수축은 굴착선에 직교하여 윤곽선이 400~430cm 간격으로 3개소에서 확인된다.

이는 수축 영정주 상단으로 연결되고 있어 판축구간으로 추정된다. 토성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내외벽 바닥에 기단석을 2~3단 높이로 평적한 후 그 위로 토축하였다.

내벽기단석은 계단식으로 쌓은 반면에 외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은 것이 특징이다. 1차 축조는 약 9.4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내벽과 외벽 기단석을 2~3단 높이 쌓은 후 그 위에 약 30~50cm 두께로 성토하였다.

토성 외벽 부분은 점성이 강한 점질토로 단단하게 성토한 반면에 안쪽 내벽 쪽으로는 비교적 점성이 약한 흙으로 두껍고 조잡하게 성토하였다.

개축흔은 외벽에서만 확인되었다. 제 1차 축조 후 무너졌거나 훼손된 성벽을 L 자상으로 절개한 후 제1차 축조시 조성된 외벽 기단석축열을 따라 그 위에 잇대어 20~40cm 크기의 활석을 12단 쌓았다.

다음 그 내부에는 적갈색부식토를 이용하여 5~10cm 두께로 정교하게 차례차례 판축하였다. 그리고 내벽 기단석과 연결되어 기둥구멍 1개 확인되었다.³⁾

2. 당감동토성

당감동토성은 행정구역상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35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평산성이다.

기록상에는 동평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초 기록은 고려 17대 의종 23년(1145년)에 간행된 『삼국사기지리지』에 원래 대증현으로 신라 경덕왕대에 동평현으로 개명하여 동래부의 영현이 되었다.

당감동토성에 대한 조사는 1992, 1994년 남서벽 일대가 조사되어 성벽의 축조수법이 확인되었다.

²⁾ 동의대학교박물관, 『釜山 望美洞 東萊古邑城』, 동의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 12, 2006.

³⁾ (주)대경종합건설·(재)경남문화재연구원, 『東萊 古邑城址』, 학술조사연구총서 제60집, 2007.

체성부 성벽은 3차에 걸쳐 축조 또는 보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확인된 체성부 성벽 폭은 1차 축조가 8.5m, 2차 축조 7.5m, 3차 축조 6.0m로 시기와 지형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다.

초축 성벽은 기저부에 암갈색 점토를 다지고 그 위에 직경 20~30cm 돌을 깔아 조성하였다. 외벽기저부에 30cm~40cm×30cm×15cm~20cm 크기의 판석형 할석재로 2~3단 기저부 석열을 배치하고 그 위는 점토와 사질토로 판축하여 성벽을 축조하고 있다.

외벽에는 길이 420cm 마다 원래 기저부 석열보다 1~2단 낮게 판축 기둥을 받쳤던 것으로 보이는 판석이 있고 그 안에 판축토가 있다.

내벽은 외벽에서부터 수평으로 판축된 판축토가 안으로 경사지는 부분에 외벽과 같은 크기의 돌을 판축토에 덧대서 쌓은 것으로 이 석축에서 안쪽으로 약 1m 밖으로 정연한 석축이 하나 더 있다.

이 사이에는 작은 돌로 채워져 있다. 1차 판축성벽은 훼손된 초축 성벽을 판축하여 보수하였다. 외벽은 초축된 기저부 석열에서 40~100cm 높은 위치에 무너진 1차 축조 판축성벽을 L자상으로 절토하여 2단의 할석을 쌓고 그 위에 재판축하였다.

초축 목주공과 1차 목주공 위치가 일치하고 있다. 내벽은 1차 축조 내벽의 약 2m 안쪽 상부에서 확인되는데 5~6단으로 된 석축형 기저부 석열을 배치하였다.

기저부 석열 하부에서는 위에서 흘러내린 듯한 적갈색점토와 10cm크기의 잡석이 섞인 20cm 두께의 층이 확인되었다.

2차 성벽은 1차 축조 외벽에서 50cm 정도 높은 지점에서 축조되어 있다. 1차 축조 외벽에서 안쪽으로 60cm 들어간 지점에 성벽을 축조하였다. 1차 축조 외벽과 같이 판축성벽을 L자상으로 절토하여 쌓았으며 2~3단의 기저부 석열이 확인된다.

내벽은 훼손이 심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남문지 동쪽 약 30m 지점에서 배수시설이 조사되었다. 초축 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바닥을 판석으로 한 별 깔고 60cm너비로 할석을 1~2단 쌓고, 상부에는 큰 괴석으로 덮었다.

괴석 사이 틈과 괴석 상부에는 할석을 깔고 진흙으로 폐쇄하여 성벽의 붕괴를 방지하였다. 1차 축조 시 이 배수구의 바깥쪽을 일부 보수한 흔적이 보이며 출수구의 규모는 70×40cm이다.

당감동토성지에서는 토기편 및 자기편과 더불어 다량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성벽 외부의 퇴적층은 3개 층으로 1차 퇴적층에서 녹청자, 2·3차 퇴적층에

서 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는 주로 樹枝文, 樹枝複合文, 線條複合文이 시문된 평기와 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평, 남면 동래부, 문개, 삼품 등의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그 중 大平은 遼 연호인 太平(1021~1030년)으로 추정되며 2차 축조와 관련된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분청사기 중에서는 人壽府(1400년, 1457~1556년) 명이 있어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토성 축조 시기는 1차 축조와 관련된 퇴적층에서 綠靑釉이 출토되었고, 그 윗층에서 청자 및 분청사기, 백자편 등이 출토되고 있어 적어도 고려 초에 축조되어 최소한 조선 초(1530년) 이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3. 교리토성

교리토성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리 3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일명 기장고읍성으로 불리운다.

교리토성은 3차례에 걸쳐 지표조사와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다.⁵⁾ 교리토성 문헌기사를 살펴보면, 고려 공양왕 3년3월조에 “기장군과 해주 용진에 성을 쌓았다.”⁶⁾는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기장군 고적조에 “고읍성은 지금의 치소 즉, 기장읍성의 동북 5리에 있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3208척이다.”⁷⁾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기장현 고적조에 “고읍성은 지금 치소의 동 5리에 있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3208척이다.”⁸⁾ 『기장현읍지(機張縣邑誌)』고적조에 “고읍성은 현의 동 5리에 있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3208척이며 지금은 鄉校가 안에 있다.”⁹⁾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고읍성은 동 5리에 있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3208척이며 지금은 폐했다.”¹⁰⁾ 라고 기록되어 있다.

4) 부산광역시립박물관, 『堂甘洞城址Ⅰ』,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연구총서 제10책, 199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堂甘洞城址Ⅱ』,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연구총서 제15책, 1998.

5) 부산대학교 박물관·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8, 기장군·북천박물관, 2005, 부경문물연구원, 2012.

6) 『高麗史』卷82 兵2 城堡 恭讓王 3年3月條 城機張郡及海州靈津.

7) 『新增東國輿地勝覽』卷23 機張縣 古蹟 古邑城在今治東北五里 土築周三千二百八尺.

8) 『輿地圖書』機張縣 古蹟 古邑城在今治東五里 土築周三千二百八尺.

9) 『機張縣邑誌』古蹟 古邑城在縣東五里 土築周回三千二百八尺 今鄉校在內.

10) 『增補文獻備考』권27 機張縣 古邑城在縣東五里 土築周回三千二百八尺 今廢.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조선시대 태조 5년 8월9일 갑오에 “왜적의 배 120척 이 경상도에 입구하여 병선 16척을 탈취해 가고, 수군만호 이춘수를 죽였으며, 동래, 기장, 동평성을 함락하였다.”¹¹⁾ 고려에 이어서 조선 초기에도 계속적인 기장 침탈기사가 확인된다.

교리토성은 정밀지표조사 및 표본조사 결과 구릉과 평지를 이어 축조한 평산성이며, 축조기법상 석축기단형 판축토성이다.

정밀지표조사 시, 산지구간인 토성 동북쪽에서 서쪽구간은 체성의 폭은 8m 내외, 높이가 2.3-2.6m 정도의 규모로 확인된다. 평지구간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체성이 구릉 정상부를 따라 축조되어 있다.

잔존 규모는 둘레 906m 정도이며, 유실된 구간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둘레 1,596-1,611m 정도이다.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추정문지 2개소, 건물지 1개소, 추정 수문 1개소, 중심도로망 등을 확인하였다.

추정문지는 직선형의 개저식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자는 파악하고 있으며, 토성 서쪽 꼭부에서 수문으로 추정되는 석축시설이 확인되었다.

교리토성은 최소 2회 이상의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초축 성벽은 삭토법과 성토법을 혼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수축 이후에는 기단석을 설치하고, 내탁식으로 축조한 기단 석축형 판축토성으로 개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차수축 판축토 하부에서 판축시 횡장목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추정되는 장방형 갯(길이:90cm, 너비:30cm 내외)이 확인되었다. 외벽 기단석열에는 이와 대응하여 영정주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평면 방향의 판상 석재가 노출되었다.

토성의 축조시기는 북벽 서쪽벽 일대에 통일신라시대에서 나말여초에 해당 하는 와편이 다량 퇴적되어 있고, 신라 경덕왕의 기장현 개명기사(756년)를 감안 할 때, 경덕왕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초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수축은 고려 전기 11세기대, 2차 수축은 고려 중기 이후로 판단된다. 최후의 수축은 공양왕 때 기장군성 축성 기사로 보아 14세기말(1391)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된다. 고려 후기 이후의 기와퇴적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서 보고자는 부분적인 수축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리토성 폐성은 조선 전기 기장성 함락(1396년)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¹²⁾

11) 『太祖實錄』5年8月9日 甲午 倭百二十尺入寇慶尙道 奪兵船十六尺 殺水軍萬戶李春壽 沒東機張東平城

4. 구량동성

구량동성은 행정구역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량동 산30, 31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남동쪽은 봉화산이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보배산과 능선으로 연결된다. 유적의 북서쪽 배후에는 명월산이 위치하는 등 주변 산들에 둘러 쌓인 독립구릉에 입지한다. 유적 내 가장 높은 곳은 해발고도가 약 43.3m 가량이다.

구량동성은 기록상 無名城¹²⁾이다. 체성부는 토축부(남서벽)와 석축부(북동벽)로 나뉜다. 토축부 길이가 약 93m, 석축부 길이가 약 100m로 두 구간 길이는 유사하다.

내외벽 기단간 거리로 본 체성 폭은 약 4.5m 가량이다. 이를 다시 수축하는 과정에서 체성의 폭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량동성은 전체적으로 경사를 이루는 생토층을 ‘L’자 상으로 정지하였다. 그 위로 적갈색 점토를 깔고 2~3단 석재를 이용하여 기단부를 조성한 뒤 판축을 실시한 형태이다.

이후 이러한 초축 단계 기단부 위로 석재를 수직으로 쌓아올려 내부의 판축 토 겉을 피복한 듯한 형태로 석축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기단석 가운데 석재를 횡방향이 아닌 종방향으로 놓아 외부로 돌출 시킨 형태가 확인된다.

이는 영정주를 놓는 초석의 역할을 하였던 석재들로 생각되며 간격은 약 3.9~4m 정도로 확인된다. 이들이 판축의 한 단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석재들의 앞이나 측면으로 영정주공이 확인되고 이들을 연결하는 석열이 토성 내부에서 관찰되었다.

이 석열은 1단 혹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쌓여있는 상태가 기단부에 비해 조잡한 듯한 느낌을 준다.

성벽의 판축토루는 기본적으로 3.9~4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영정주와 축조구획석열을 시공 기준으로 하여 한 단위구간씩 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토축구간 내벽은 후대에 증개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초 확인된 내벽은 약 4~5단의 석재들로 상단으로 갈수록 약 10~20cm씩 들쭉쌓기를 실시하

12) 기장군, (재)부경문화연구원, 『기장 고읍성 학술조사보고서』, 기장고읍성 보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2012.

13) 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 2011, 192~193쪽.

高麗史 城堡條에 보이는 고려의 축성관련 기사는 수개축 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178회가 보이는데, 태조, 광종, 목종, 현종, 정종 대에 15회 이상 축성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태조와 현종대에는 30회 이상의 많은 축성기록이 보인다.

여 계단상으로 축조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 앞쪽으로 초축 내벽이 확인되었는데 초축 내벽은 증축내벽과는 다르게 수직으로 쌓여져 있는 형태이고 내벽 사이에서 영정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내벽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입수구를 중심으로 하여 날개 형태의 배수시설을 내벽 뒤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날개형태의 배수시설은 시기는 다르나 남한산성의 수구 입구부¹⁴⁾에서도 확인된다.

구랑동성에서 확인되는 문지는 석축구간에 1개소(동문지), 토축구간에 1개소(남문지)가 확인된다. 동문지는 좌우 측벽을 사이에 둔 평문식 형태이며 문지 내외벽 너비가 약 6m, 측벽 거리는 약 4.8m로 확인되었다. 문지 초석 높이는 50~80cm이고 초석들 간격은 약 2m이다. 문지 내부와 외부와의 레벨차는 약 1.5m이며 개구부 측벽 잔존높이는 약 1m이다.

동문지는 문지 초석 하부에서 초축단계의 문지 초석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초축 이후 1차례의 수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문지는 동문지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문지가 평문식의 성문방식인데 반해 남문지는 양쪽 체성이 어긋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랑동성지 남문지는 남벽 체성부를 활용한 한쪽 측벽만이 석재로 마감한 형태로 확인되며 맞은편 측벽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랑동성지 외황은 토축으로 축조된 구간 외곽에서 확인된다. 외황 전체길이는 약 120m 가량이다. 조사구역 중 북벽 일부와 서벽 전체 및 남벽 일부를 아우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황의 잔존깊이는 1.2~2m 가량이다. 외황 상부 폭은 4~7m이며 하부 폭은 1.2~3m 가량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외황 단면은 'U'자 형태보다는 'V'자에 가까운 형태이다.

부산 구랑동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179점이다. 그 중 토도류 및 금속류 등은 21점이다. 출토유물 가운데 토도류가 총 11점이다. 자기는 지표에서 수습된 분청과 백자 각 1점 이외에는 청자이다. 동벽에서는 가래로 추정되는 철기편이 확인된다.

출토유물 가운데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청자 4점이다. 청자 굽 형태는 해무리굽이며 굽접지면은 1~1.3cm이다. 내저원각이 생기는 현상으로 보아 한국식 해무리굽으로 파악된다. 한국식 해무리굽 제작시기는 고려청자의 편년을 전, 중, 후기로 나눌 때 전기에 해당한다. 전기 중에서도 선해무리굽 제작시기보다 늦

14) 중원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 2007.

은 11세기 초로 추정된다.

출토기와는 통일신라시대 전통이 이어지는 선조문에 'X'자문이 부가된 기와들이 나타나고 있다. 횡대구획으로 상하 같은 문양이 시문된 11~12세기 기와들이 다량으로 확인된다. 13세기 기와 특징인 복합문 기와가 소량 출토되나 이후 기와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고려시대 중기인 13세기경에 폐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II. 부산지역 토성의 구조와 축조수법

여기에서는 고고학적 조사로 확인된 부산지역 토성 구조와 축조수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부산지역 망미동토성, 교리토성, 당감동토성 평면형태는 크게 제형과 타원형의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제형에 속하는 성곽은 망미동토성, 구랑동성이며, 타원형을 띠는 성곽은 교리토성, 당감동토성이다.

특히 제형인 망미동토성은 기본 방형으로 동쪽이 돌출되어 완만한 호상을 그리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관방성인 구랑동성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부산지역에 축조된 판축토성은 모두 유사한 평면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전(前) 시기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산지역 토성 가운데 고읍성은 평지나 완만한 구릉성 지대에 축조되었다. 교리토성과 기장산성, 망미동토성과 배산성에서 보듯이 배후에 입보농성형 내지 피난성 성격이 짙은 석축산성을 가진 상호보완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것은 강화중성과 강화산성, 김해고읍성과 분산성, 거제 둔덕기성과 거림리유적¹⁶⁾, 함안 성산산성과 괴산리유적¹⁷⁾ 등의 관계를 상징하여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부산지역 토성 성둘레는 망미동토성(약1400m), 교리토성(약1600m), 당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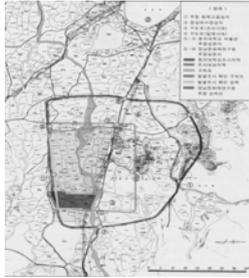
¹⁵⁾ 부산박물관, 위의 책, 2016, 287~288쪽.

¹⁶⁾ 동아세이문화재단연구원, 『거제폐왕성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서』, 발굴조사보고서 제7집, 2006, 『거제둔덕기성동문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제51집, 2011.

¹⁷⁾ 동서문화연구원, 『咸安槐山理遺蹟』, 조사연구보고서 제47집, 2011.

토성(약 1350m) 등이다.¹⁸⁾ 반면에 구랑동성은 193m로 규모면에서 차이가 크다.

표 1. 부산지역 관축토성 평면형태 및 규모

유적명	평면형태	유적명	평면형태
구랑동토성 (둘레 : 180m)		당감동토성 (둘레 : 1,360m)	
망미동토성 (둘레 : 1,400m)		교리토성 (둘레 : 1,600m)	

또한 경상도지역 여타 토성과 비교해 보면 김해고읍성(약 5,400m), 마산 회원현성(약 1,400m), 사천 선진리성(약 1,300m), 울주 화산리토성(약 450m), 울산 반구동토성(약 400m) 등이다.

이 가운데 치소성에 해당하는 김해고읍성, 마산 회원현성, 사천 선진리성 성둘레가 김해고읍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산지역의 고읍성 성둘레 길이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구랑동토성과 같은 관방성에 해당하는 울주 화산리토성, 울산 반구동토성 등은 성둘레 길이가 고읍성에 비해서 짧은 차이점이 확인된다.

여타 지역에서 확인되는 토성 가운데에는 충주고읍성 둘레가 8km이고¹⁹⁾ 강화중성 역시 이와 유사한 성둘레²⁰⁾이다. 두 곳 다 고려시대 치소성으로 사용된

¹⁸⁾ 경남문화재연구원, 『동래 고읍성지』, 경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연구총서 제60집, 2007.
¹⁹⁾ 신용민, 심종훈, 구형모, 『충주 호암지구 토성유적의 초보적 연구』, 『韓國城郭研究의 新傾向』, 한국성곽학회 초대감사 김정보교수 퇴임기념 논총, 한국성곽학회, 2014, 269~294쪽.

토성 가운데서 성둘레 길이가 가장 긴편에 속한다. 또한 토성 성격 역시 도성 내지 지방에서 도성에 비견대는 중요한 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부산지역 토성의 성둘레가 곧 고려시대 지방 주군현 치소성의 일반적인 성둘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 토성 축조수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30cm~50cm 가량 치석한 석재를 이용한 기단석을 기저부에 설치한 석축기단형 판축토성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이다.

표 2. 부산·경남지역 판축토성 기단부 축조형태

유 적 명	기단부 축조형태	유 적 명	기단부 축조형태
망 미 동 토 성		당 감 동 토 성	

이때 기단에 사용된 기단석은 두께에 비해 길이가 긴 세장방형 성석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각 공정별로 수평을 맞추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허튼충쌍기로 축조되어 있다.

이러한 세장방형 성석을 기단부에 사용한 석축수법은 여타 시기와 차이가 있다. 즉 방형 혹은 장방형의 활석을 정연하게 가공한 삼국시대 성곽이나 장대석을 지대석으로 삼고 그 위로 1.5-2m 내외의 자연대석 성석을 입수적인 조선시대 읍성의 축조수법과도 차이가 있다.

이는 부산지역 토성 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남지역 여타 판축토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시기성을 가진 축조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 토성에서는 내벽에 석축기단을 설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교리토성은 1,2차 수축과정에서 내벽 석축기단은 각각 2단과 1단으로 확인되고 있다.

20) 이희인, 위의 논문, 2012, 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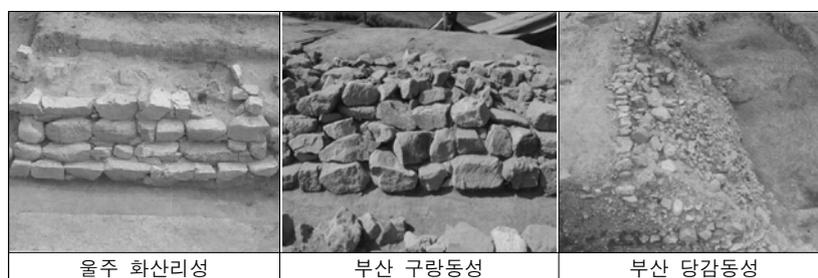
강화중성은 권력승계 이후 최항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강도 방비의 강화라는 현실적이 이유에서 축조되었으며, 그 성격은 개경의 황성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당감동토성에서는 1차 축조 내벽은 5~6단으로 된 석축으로 확인되고, 2차 내벽에서는 2~3단의 석축이 확인된다.

망미동토성에서는 2~3단의 계단식 석축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토석병축성인 구랑동성 토성부에서도 약 3~4단 계단식 내벽이 확인되었다.²¹⁾

이러한 양상을 종합해 볼 때 부산지역 토성 내벽은 1,2단과 2,3단, 3,4단, 5,6단으로 축조되고, 계단식과 수직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분류된다.

표 3. 고고학적 조사된 판축토성의 계단식 내벽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석축기단 축조순서에 있어 외벽 혹은 내벽 가운데 한 곳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 내외벽에 설치한 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²⁾ 따라서 부산지역 고읍성은 가장 늦은 단계에 해당하는 토성 기단 축조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재론의 여지가 있어 뒤에서 다시 언급토록 한다.

기단석축과 더불어 판축토성에서 시기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영정주의 간격이다.

일반적으로 간격이 좁을수록 축조연대가 빠르고, 넓을수록 축조연대가 늦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대략 3~6세기 중·후반까지 영정주 간격은 1~1.5m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7세기 이후부터는 3m이상으로 넓어진다. 이때 토성 영정주 간격은 최소 380cm에서 최대 465cm로 1m 가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²³⁾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참조하면 평지에 입지하고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망

21) 동양문화연구원, 『부산 구랑동성지』, 조사연구보고 제12집, 2013.

22) 고용규, 『성벽 토성』, 『성곽조사방법론』,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고고교육총서2, 2013, 177쪽.

23) 고용규, 위의 글, 2009.

미동토성, 당감동토성, 교리토성 등의 부산지역 토성은 비슷한 영정주 간격, 즉 400cm를 기준으로 가감이 이루어진 듯하다.

아울러 7세기 이후에 영정주 간격이 3m 이상 늘어남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축조시점이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여타 지역인 강화중성, 충주고읍성, 마산 회원현성 등도 모두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 토성의 체성 폭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들 토성 체성 폭은 약 450cm~약 980cm 사이로 편차가 다소 크다. 특징적인 것은 치소성으로 생각되는 망미동토성, 당감동토성 등에서만 약 9m에 가까운 너비가 확인 된다. 인접한 김해고읍성은 10m 내외로 확인되고 있다.

표 4. 부산지역 판축토성 속성표

성곽명	체성 둘레(m)	영정주 간격(cm)	체성폭(cm)	유형	평면형태
당감동토성	1350	420~430	950	치소성	타원형
망미동토성	1400	435	980	치소성	제형
교리토성	1600	.	800~1000	치소성	타원형
구랑동성	193	380~400	550	보루성	제형

보루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구랑동성, 화산리토성, 반구동토성 폭은 각각 550cm, 520cm, 450cm이다.

당감동토성, 교리토성, 망미동토성 등 치소성으로 파악되는 토성 초축 폭에 비해 약 50~60% 가량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절반의 크기로 축조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구랑동성은 토축구간에 비해 석축구간 체성부 폭이 약 1m 가량 줄어드는 양상도 확인된다.

또한 당감동토성에서는 수축 시 약 1.5m~2m가량 체성 폭이 줄어들며 이후 석축화 과정을 거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토성 벽 폭을 줄이며 석축으로 수, 개축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 토성은 석성 혹은 석축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토축 체성 폭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강릉읍성은 최초 토성 폭 약 5.4m에서 2차 수축 석성 폭이 약 9.1m로 조사되었다.²⁴⁾ 당감동토성의 최초 체성부 폭인 9.5m에서 2차 수축 시 약 6m로 각각 약 3.5m씩 체성의 폭을 줄인 것과는 반대의 사례로 특징적인 비교가 된다.

²⁴⁾ 강원문화재연구원, 『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39책, 2006.

부산지역 토성 체성부 기단석렬 기단석 가운데 석재를 횡방향이 아닌 종방향으로 놓아 외부로 돌출시킨 형태가 확인된다.

이는 영정주를 놓는 초석 역할을 하였던 석재들로 생각되며 간격은 약 3.9~4m 정도로 확인된다.

이러한 기단석렬 초석은 당감동토성, 교리토성, 구랑동성 초축 기단부에서 확인되고 있어 시기성을 가진 축조수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강화중성 일부인 옥림리유적, 제주 향파두리성, 충주 호암토성, 마산 회원현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고려시대 유행한 토성 축조수법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다.



도 1. 구랑동성지 외벽 기단 세부상태

교리토성 외벽 기단석렬에서는 길이 70cm가량의 평면 방형 판석이 맞물려 있다. 판석은 기단 석렬 면석에서 30cm 정도 바깥에 빠져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 초축 토성 축조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횡장목 거치갱과 호응하고 있다. 이들 간격은 250cm 내외이다.²⁵⁾

이러한 초석은 판축의 한 단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석재들 앞이나 측면으로 영정주공이 확인된다. 이들을 연결하는 석렬 및 횡장목 거치갱 등이 토성 내부에서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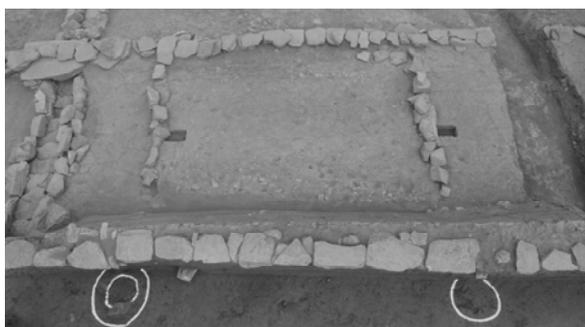
이 초석은 당감동토성, 구랑동성 등에서는 1단 혹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쌓여있는 상태가 기단부에 비해 조잡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강화중성(옥림리유적) 4m내외, 향파두리성 3m 등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토성의 축조규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산지역 토성 중 기단부에서 확인되는 것이 내외벽 기단 사이에 체성부

²⁵⁾ 기장군, (재)부경문화연구원, 『기장 고읍성 학술조사보고서』, 기장고읍성 보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2012, 55쪽.

진행방향과 직교하게 놓여 있는 1열의 석열이다. 영정주의 간격인 대략 4m 전후에서 확인되고 있다. 토성 축조시 기반부에 설치된 분단시공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 2. 구랑동성지 내외벽 기반석열 축조상태

이러한 토성 체성부에 직교하여 설치된 석열은 기존 연구성과에서는 언급되지 않던 것이다. 부산지역 토성 가운데 구랑동성과, 망미동토성에서 확인되었다.

이외 교리토성 초축 성벽 조성시 절개한 풍화암반에서 앞서 언급한 추정 횡장목 거치갱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확인된 횡장목 거치갱은 깊이 90cm, 폭 35cm로 평면 장방형의 형태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다.²⁶⁾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토성에서는 토축, 석축의 축조수법이 혼용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구랑동성 조사에서 토축부 길이 약 93m, 석축부 길이 약 100m로 확인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동래군조에 「古邑城이 海雲浦에 있으며, 東南은 石築, 西北은 土築인데 둘레가 4,430尺이며, 지금은 퇴폐하였다」.²⁷⁾ 또한 당감동성 역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동평현성이 동남은 석축, 서북은 토축으로 축조되어 있다.²⁸⁾는 기사가 확인된다.

따라서 『新增東國輿地勝覽』간행 당시에는 토축 체성부와 석축 체성부가 병행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이 조선 전기 토성 석성화 과정상에서 이루어진 병축성 형태이 있는지 아니면 부산지역 토성만의 특징인지는 전체 체성부에 대하여 고고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다.

26) 기장군, (재)부경문화연구원, 앞의 책, 2012, 55쪽. 조사보고서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함.

27)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郡條 古邑城條

「古邑城 在海雲浦 東南石築 西北土築 周四千四百三十尺 今頽廢」

28)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 古蹟條

「東平縣城 在縣南二十里雲浦 東南石築 西北土築 周三千五百八尺 今頽」

그리고 이런 토석병축성은 토축 후 후대 석축으로 개축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초축시 기저부 조성부터 토축과 석축을 구분하여 의도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파악하여 지역성을 가미한 성곽축조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경상도지역 가운데 부산지역에서만 유일하게 확인될 뿐 다른 지역 축성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충청도지역 아산현 신성산성(新城山城)²⁹⁾에서만 유사성이 확인될 뿐 다른 행정구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시간성과 지역성을 갖춘 부산지역 토성만의 특징적인 축조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IV. 부산지역 토성의 축조시기 검토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부산지역 토성의 특징요소에 의거하여 토성 축조시기를 살펴본다.

부산지역 토성은 구조와 체성부 축조수법을 살펴본 결과, 토성 체성부 기단에 있어서 석축기단이 없는 무석축기단식과 석축기단식이 중복되어 유행하다가 점차 석축기단식이 대세를 이루며 가장 오랜 동안 유행하게 된다.

또한 부산지역 토성 축조수법 가운데 하나인 토루 기저부에 석축열을 축조하지 않고 영정주와 판목을 설치한 후 성토수법 및 삭토수법을 활용한 무석축기단식이 유행할 때 인접산성 축조에서는 석축기단과 체성부 축조에 석재를 이용한 성곽 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³⁰⁾ 이후 산성에서는 지속적인 석축 체성부가 변화 발전한다.

반면에 치소성과 관방성 목적으로 축조되는 부산지역 토성은 산성축조에 영향을 받았다. 기단부에 일정한 높이만큼 석축이 설치되고 그 위로 판축기법을 이용한 체성부가 축조된다. 이때 기단부에 설치되는 석축은 처음에는 기단의 높이가 높다가 점차 기단 높이가 낮아진다. 14세기로 갈수록 다시 낮아진 석축기단 위에 석축을 쌓아 올려서 외벽에 전반적으로 석축화가 진행되는 것이 나타나고

29)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0권 牙山縣 古蹟條

『新城山城 基頂有古城二連築基北城一築周四百八十尺 高十尺 內有一井天旱禱雨 基南城土築周四百八十尺高四尺...仍號平澤城』

30) 심봉근, 『釜山地域 古代城址의 性格檢討와 課題』, 문물연구 제31호, 2017, 27~49쪽.

있다. 아울러 내벽석축 형태가 계단식과 수직식에서 다시 계단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산지역 토성은 삭토법에 의한 토성 체성부 축조가 확인된 교리토성 초축 성벽이 가장 고식으로 추정된다.³¹⁾

이 교리토성과 더불어 양산 순지리토성에서 확인되는 유사판축 혹은 성토법에 의한 성벽이 영남지역에서 가장 고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³²⁾를 참조하면 부산 교리토성 초축 성벽은 적어도 그 축조 년대가 6세기 중후반 이전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접한 곳에 7세기 전반경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는 기장산성 북벽과 서벽일대에 걸쳐서 통일신라, 고려 초로 편년되는 기와유물이 수습되고 있다.³³⁾

따라서 신라 경덕왕 때 균현제도 개편으로 기장현이 설치되면서 치소성이 축조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참고한다면³⁴⁾, 적어도 8세기 중반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다음 망미동토성 초축 성벽 양상들을 살펴보면 내외벽에 석열이 축조되어 있다. 이때 기저부 한쪽에 석열을 배치하는 형식이 대략 6세기 중, 후반~9세기 초반 무렵까지의 연대 폭을 가지며, 기저부 양쪽에 석열이 배치되는 것은 9세기 초반 이후에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 결과³⁵⁾와 부산지역 토성 가운데 한쪽에만 석열을 축조하고 판축을 실시한 토성벽은 확인되지 않음을 주지한다면 그 초축 시기가 적어도 9세기 초반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당감동 초축 성벽과 김해 고읍성³⁶⁾ 초축 성벽은 체성 내외벽 축조수법과 영정주의 배치상태로 판단할 때 석축기단 판축토성으로서 가장 이른 단계의 형태로 파악해 볼 수 있겠다.

부산지역 토성에서 다음 단계는 당감동 수축 1차 성벽, 망미동 수축 1차 성벽 등이 해당 된다.

이 토성들 특징은 앞서 망미동토성, 당감동토성 초축과 유사한 가운데 차이

31) 기장군·(재)부경문화연구원, 『기장 고읍성 학술조사보고서』, 교리토성 보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2012.

32) 고용규, 위의 글, 2013, 177쪽.

33) 기장군·蔚山文化財研究院, 『機張山城』, 울산문화재단연구원학술조사보고 제117책, 2014.

34) 심봉근, 위의 논문, 2017, 34쪽.

35) 고용규, 앞의 글, 2013, 177쪽.

36) 동아시아문화재단연구원, 『김해 고읍성』, 발굴조사보고서 제26호, 2008. 출토유물은 토기와 기와류가 다량 확인되었는데 토기류는 9~10세기대의 것들이 대부분이며 기와는 평기와만 출토되었다. 기와문양은 크게 단독문과 복합문임.

점은 내벽이 수직벽으로 축조된다. 이때 영정주 간격이 4m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벽 석축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토성단계에서는 석축기단에 사용된 석재 형태는 세장방형이 많이 확인된다. 그리고 영정주를 받치는 초석받침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고 석축기단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행할 구량동토성 초축성벽, 교리토성 수축 1차성벽 보다는 이른 단계의 축조수법으로 파악되며 그 축조 시기는 대략 10세기 후반 경으로 판단된다.³⁷⁾

다음 축조단계로는 구량동 토성 초축 성벽, 교리토성 수축 1차 성벽을 들 수 있다. 이 단계 축조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구량동성³⁸⁾ 출토기와 및 자기이다.³⁹⁾ 제작 시기는 고려 전기인 11세기 초로 추정된다. 또한 교리토성 외적층기와 시기 역시 11세기로 추정되고 있어 성곽 조성 및 사용 시기는 11세기로 추정된다.

마지막 단계는 구량동성 수축내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축내벽 특징은 수직벽에서 계단식벽(폭 2m 이내)으로 축조하거나 혹은 수직벽에 덧대어 계단식벽으로 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화산리성⁴⁰⁾과 당감동토성에서 확인된다.

이 계단식 내벽은 구량동성 초축 년대가 11세기⁴¹⁾임을 감안하고, 13세기 중반에 축조되는 강화중성과 13세기 후반에 축조되는 향과두리성에서는 계단식 내벽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13세기 후반 이후 14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교리토성, 당감동토성, 망미동토성 관련 기사를 참고할 때⁴²⁾ 그 사용 시기는 대략 14세기 중반에서 14세기 후반까지 극히 짧은 기간에 걸쳐서 축조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토성 특징요소와 축조시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부산지역 토성은 무석축기단식에서 석축기단식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수개축을 통하여 8세기에서 14

37) 『高麗史』 卷3, 世家 穆宗 8년 정월, 『高麗史』 卷82, 兵 志 穆 城堡.

38) AMS 분석을 통해 구량동성은 10~12C에 해당하는 연대측정 결과가 확인된다.

39) 강경숙, 『한국도자사』, 2012, 전기 제2기 10세기말~1070년.

40) 동아대학교박물관, 『울주 화산리성지』, 1990.

41) AMS 분석을 통해 구량동성지는 10~12C에 해당하는 연대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2)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郡條 古邑城條 『古邑城 在海雲浦 東南石築 西北土築 周四千四百三十尺 今頽廢』,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 古蹟條 『東平縣城 在縣南二十里雲浦 東南石築 西北土築 周三千五百八尺 今頽』.

세기 사이에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지역 토성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를 걸쳐서 산상이나 구릉성산지에 축조된 고대산성에 설치된 지방 행정조직상 치소성과 관방성의 역할이 이전된 유적임을 알 수 있고 그 구조와 축조수법 역시 전 단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부산지역 토성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토대로 부산지역 토성을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에 사례로 든 내용이 부산지역 토성 특징과 축조수법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더구나 고고학적 조사로 확인되지 못한 토성 특징이 있을 수 있다. 기 조사된 토성자료 경우에도 그 해석 및 연구검토가 여전히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여기에서 토성 특징을 모두 정리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최근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져 새롭게 파악된 1차적 자료와 기존 조사 자료 가운데 간과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 토성의 구조와 축조수법을 알리고자는 앞선 마음에 줄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토성 부대시설인 성문, 치성, 해자(隄), 배수시설 등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부산지역 토성 축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14세기 중반 이후부터 15세기 초 토성에서 석성으로 전환과정을 여기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부산지역 토성 축조수법상에서 독특하게 확인되는 토석병축성 연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은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산지역 토성에 인접한 고대산성과 토성과의 관계규명 역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밝히며 이 모든 것을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고 더욱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맺음말에 대신한다.

■ 투고일 2017년 7월 31일 |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30일 ■

참고문헌

- 『高麗史』 卷3.
『高麗史』 卷82.
『高麗史節要』17권
『東國輿地勝覽』
- 강경숙, 『한국도자사』, 예경, 2012.
- 강원문화재단연구원, 「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단
연구원 학술총서 39책, 2006.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마산 회원현성지』, 조사연구보고서 제65책, 2008.
- 고용규, 「南韓地域 版築土城의 研究」,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_____, 「고려시대 성곽의 축성법」, 한국성곽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한국
성곽학회, 2009.
- _____, 「성벽 토성」, 『성곽조사방법론』, (사)한국문화재단조사연구기관협회 고고
교육총서2, 2013.
- 고정용, 「韓國古代山城」, 『古代文化』47卷 12號(通卷 443號), 日本 古代學協會,
1995.
- 기장군·(재)부경문물연구원, 『기장 고읍성 학술조사보고서』, 교리토성 보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2012.
- 기장군·蔚山文化財研究阮, 『機張山城』, 울산문화재단연구원학술조사보고 제117
책, 2014.
- 金容民, 「扶蘇山城의 城壁築造技法 및 變遷에 대한 考察」, 『韓國上古史學報』26
號, 韓國上古史學報, 1997.
- 나동욱, 「경남지역 토성의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羅東旭, 「慶南地域의 土城 研究-基壇石築型 版築土城을 중심으로-」, 『博物館研
究論集』5,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6.
- 동서문물연구원, 「咸安槐山埋遺蹟」, 조사연구보고서 제47집, 2011.
-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거제폐왕성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서』, 발굴조사보고서
제7집, 2006.
- _____, 『김해 고읍성』, 발굴조사보고서 제26호, 2008.
- _____, 『거제둔덕기성동문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제51집, 2011.

- 동아대학교박물관, 『울주 화산리성지』, 1990.
- 동양문물연구원, 『부산 구랑동성지』, 조사연구보고 제12집, 2013.
- 동의대학교박물관, 『釜山 望美洞 東萊古邑城』, 동의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 12, 2006.
-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堂甘洞城址Ⅰ』,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연구총서 제10책, 1996.
- _____, 『堂甘洞城址Ⅱ』,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연구총서 제15책, 1998.
- 부산박물관, 『釜山성곽』,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51집, 2016.
- 사천시·경남문화재연구원, 『泗川 船津里城』, 學術調查研究叢書 第65輯, 2008.
- 서정석, 『百濟의 城郭』, 학연문화사 고고학총서 30, 2002.
- 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 2011.
- 신용민, 심종훈, 구형모, 『충주 호암지구 토성유적의 초보적 연구』, 『韓國城郭研究의 新傾向』, 한국성곽학회 초대감사 심정보교수 퇴임기념 논총, 한국성곽학회, 2014.
- 심봉근, 『한국 남해연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학연문화사, 1995.
- _____, 『釜山地域 古代城址의 性格檢討와 課題』, 문물연구 제31호, 2017.
-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 _____, 『백제 산성의 이해』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역사문고 _07 개정증보판, 주류성, 2009.
- 안성현, 『남한지역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제25호, 2016.
- 이일갑, 『경남지역 연해읍성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07.
- _____, 『남해안 연해읍성의 평면형태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 _____, 『영남의 고고학-고려·조선시대 성곽』, 사회평론, 2015.
- 이석 외 2명, 『이론 토질역학』, 예문사, 2002.
- 이희인, 『高麗 江都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주)대경종합건설·(재)경남문화재연구원, 『東萊 古邑城址』, 학술조사연구총서 제60집, 2007.
- 중원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 2007.
- 차용걸, 『百濟의 版築技法-版築土壘의 調査를 중심으로』, 『百濟研究』19집, 忠南大百濟研究所,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Toseong of Busan Area

Lee, Il-Gab

In Busan, there are Myeongi-dong Toseong, Tanggong-dong Toseong, Goryeo Toseong and Chuang-gong, and Toseong in the castle classification.

The planar forms of Mt. Myeongdong, Georgi Toseong, Tanggongdong, Toseong, and Gulangdong in Busan are classified into formulations and ellipses.

Among the Toseong in Pusan area, Goo-eup is built on a flat or gentle hilly area. As shown in the Doctrine of Toseong, Gyangjang Acid, Myeongyidong Toseong, and Deacidification, it shows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characteristic of strong acidity and evapotranspiration in the rear.

A common feature that appears in the construction method of Toseong in Pusan area is that it is constructed as a basement of stonemasoned stonework with stone base.

At this time, the gypsum used in the base was three long rectangular stones, which are longer than the thickness, and it is confirmed in Toseong in Busan area as well as in other gypsum in Gyeongnam area.

In Mt. Toseong, Mt. Moon, Toseong, Gongryeong, and Toseong, which are estimated to be plainsolite in Toseong in Pusan area, it seems to have been added or subtracted based on the interval of 400m. However, in the case of Gulang-gil, Baeksan-ri and Toseong, which are considered to have played a role of Boru, 50 ~ 60% of the total width of Toseong is 550cm, 520cm and 450cm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width of the existing athletic body decreases.

"Nephrology Dongguk Ryuji Seungam" The Busan area is the only place where pylons and tiles are mixed in the Gyeongsang area. Therefore, it can be identified as a distinctive building pattern of Toseong in Busan area with time and locality.

Key Words : Eupseong, Goo-eupseong, Plateau Toseong, Body part, Yeongjeongju, Stone foundation

